

2018 년 9 월 1 일 “(참된 공동체 5) 흠 없는 자녀로”(빌 2:15-18)

[1]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거스르는 세속적인 영적, 정신적 영역을 말합니다. 세상의 상향적 길에 오르려고 모든 힘을 쏟아 붓는 우리에게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움으로써 공동체적 성품을 길러가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왜곡된 세상의 강한 물결속에서, **수 1:7-8**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운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말씀(율법)을 따르는 방식의 삶을 택하라고 하시며 이것이 성공하는 길임을 약속하십니다.

[2]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십시오.

구부러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흠없이 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최우선의 길로 삼기 위해 필요한 용기는 성도의 흠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내 삶의 길이 말씀 속에 이미 열려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맺음>

성찬에 임할 때, 말씀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붙들겠다는 결단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말씀안에 열린 길을 택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한 정직하고 용기있는 고백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다른 관련 질문을 가지고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본문에서 흠 없이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2.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말씀의 진수를 만난 적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나누어 보세요.